

공동주택 거주자의 특성에 따른 에너지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nergy Use Behavior according to Apartment Residents' Characteristics

조성희* 정수진**
Cho, Sung-Heui Jung, Su-Jin

Abstract

With population growth and quality of life improvement, household energy use also has increased. Under this circumstances, consumers are increasingly required to seek for efficient ways of energy saving. However, precedent studies have largely overlooked energy consumers' consumption behavior, and particularly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energy consumption or saving patterns of residents living in apartments, which account for over 50% of the Korean housing marke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apartment residents' energy use behavior according to apartment residents' characteristics in order to efficient energy use and management. To this examination, survey was conducted of housewives living in apartments in Busan, and 403 data were analyzed by the SPSS WIN 12.0 program.

With respect to their energy behavior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t was different depending on income, housing size, age, the length of residence, and the education standard. When higher income group and larger housing size group, residents were not doing 'passive saving' and 'comfort oriented.' When younger, they were 'comfort oriented.' When well-educated, they were 'comfort oriented.' Also, with regard to the length of residence,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effective guidelines in efficient management, policy making, and education method reflecting energy use behavior of energy users.

Keywords: Apartment, Energy use behavior, Residents' characteristics

주요어: 공동주택, 에너지사용행태, 거주자특성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 산업사회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인구의 증가로 인해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에너지소비는 경제개발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지속적인 에너지소비의 증가로 인한 에너지자원의 부족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등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소비증가의 문제는 에너지절감 기술의 개발,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 등 기술적인 방법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실제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자측면에서의 절약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가정에서의 에너지사용행태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주택재고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주거부분의 에너지소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거주자들의 에너지사용행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에너지사용 및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에너지사용행태를 파악하고자한다.

이는 차후 실제 에너지사용자들의 에너지사용행태를 반영한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수립, 그리고 및 교육방향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연구내용 및 방법은 크게 문헌고찰과 실증조사연구로 구성된다. 먼저 에너지사용과 관련한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공동주택에서의 에너지소비특성 및

*정회원(주저자), 부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공학박사

**정회원(교신저자), 부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박사과정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입(No.2011-0001031).

에너지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고 가구특성 및 거주특성문항과 에너지소비에 관련된 행동에 관한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공동주택의 주부를 대상으로 2010년 10월 14일부터 2010년 10월 28일까지 진행되었다. 주부로 한정된 이유는 가정 내 가전기기를 포함한 에너지사용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설문지는 총 450부를 배포하여 441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98%),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불충분한 것과 조사대상으로 불충분한 설문을 제외한 40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결과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 선행연구고찰

에너지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에너지소비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환경문제와 연관 지어 소비자의 태도, 의식 및 행동을 조사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에너지절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주요 영향요인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남숙(1984)은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의식과 절약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변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주택규모가 클수록, 주택유형이 아파트·연립주택인 경우 에너지절약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서정희(1991)는 울산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환경문제와 관련된 소비자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였는데, 성별, 소득, 교육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남자보다 여자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고소득집단일수록 소비자기능의 수행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홍기남(1992)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생활환경문제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연령, 취업유무, 교육수준, 소득, 가장의 직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행동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전업주부일 때, 고소득층 일수록, 가장의 직업이 관리직일 때 생활환경 문제에 대한 소비자행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진희(1995)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환경보전의식 및 에너지절약 관련 지식 및 행동이 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전업주부일수록, 주택유형이 단독주택일수록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사용행동의 수준이 높다고 보았다. 이기춘(1995)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환경의식적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였다. 소득, 취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저소득집단일수록, 전업주부일 때 환경의식적 소비자행동의 수준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장혜연(1997)은 직업유무와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전업주부일 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친환경적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요약해보면<표1>, 에너지소비와 관련된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생활수준), 주택규모, 취업여부 등으로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연구자마다 변인에 따른 연구결과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에너지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을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소득, 주택규모와 함께, 거주기간과 가족생활주기를 포함시켜 조사해보고자 한다.

표1. 선행연구

영향변인	성별	주부연령	주부교육수준	주부직업유무	남편직업	소득	주택규모	주택유형
연구자								
최남숙(1984)			○			○	○	○
서정희(1991)	○		○			○		
홍기남(1992)		○	○	○	○	○		
이기춘(1995)				○		○		
정진희(1995)		○		○				○
장혜연(1997)			○	○				

III.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표2>, 주부의 연령은 평균 46.0세(SD=7.5)로 40대와 50대 이상이 각각 50.1%, 30.5%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편연령은 평균 48.6세(SD=7.5)로 역시 40대(41.9%)와 50대이상(46.4%)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거주가구의 가족생활주기도 성인기이상이 50.6%로 높게 나타났다. 주부의 학력은 대졸이상이 59.7%로 주부의 과반수이상이 대졸이상의 고학력으로 나타났으며, 주부의 직업은 전업주부 65.9%, 취업주부 34.1%로 전업주부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가족구성은 부부와 자녀의 구성이 83.8%로 높게 나왔으며, 가족구성원도 평균 3.7명(SD=0.9)으로 파악되었다. 주택규모는 30평형대가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평형대 22.6%, 20평형대 17.9%, 50평형이상이 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가비율은 88.0%로 높은 자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현 아파트 거주기간은 평균 6.8년(SD=5.1)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400-500만원 미만이 26.8%, 600만원 이상이 20.1%로 나타나 도시근로자가

구 월평균소득 3,598,789원(2010년 2/4분기)³⁾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으로 파악되었다.

표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항목	세부항목	N (%)	항목	세부항목	N (%)
주부 연령 M=46.0 SD=7.5	30대이하	78 (19.4)	가족 구성	부부	22 (5.6)
	40대	202 (50.1)		부부+자녀	332 (83.8)
	50대이상	123 (30.5)		부모+부부+자녀	42 (10.6)
	합계	403 (100.0)		합계	396 (100.0)
주부 학력	대졸이상	234 (59.7)	소유 상태	자가	351 (88.0)
	고졸이하	158 (40.3)		타가	48 (12.0)
	합계	392 (100.0)		합계	399 (100.0)
주부 직업	취업주부	133 (34.1)	거주 가족수 M=3.7 SD=0.9	3명이하	141 (35.0)
	전업주부	257 (65.9)		4명	212 (52.6)
	합계	390 (100.0)		5명이상	50 (12.4)
가족 생활 주기	미취학기까지	45 (11.2)		월평균 소득 (만원)	합계
	초등교육기	54 (13.4)	300미만		62 (15.4)
	중고등교육기	100 (24.8)	300-400미만		103 (25.6)
	성인기	204 (50.6)	400-500미만		108 (26.8)
	합계	403 (100.0)	500-600미만		49 (12.2)
주택 규모 (분양 면적 기준)	20평형대	72 (17.9)	거주 기간 M=6.8 SD=5.1	600이상	81 (20.1)
	30평형대	192 (47.6)		합계	403 (100.0)
	40평형대	91 (22.6)		2년미만	115 (13.6)
	50평형이상	48 (11.9)		2년~5년미만	119 (28.5)
	합계	403 (100.0)		5년~10년미만	119 (29.5)
			10년이상	114 (28.3)	
			합계	403 (100.0)	

2. 에너지사용 행동

공동주택 거주자의 에너지사용 행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추가로 공동주택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여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이때 에너지사용범위는 고지서를 통해 사용량과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가스, 전기, 상수로 한정하였다.

1) 에너지사용 행동 특성

에너지사용 행동을 조사한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표3>, ‘세탁물 건조 시 빨래줄(빨래대) 사용(4.4(0.7))’과 ‘설거지 시 식기세척기보단 손으로 함(4.4(0.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분리수거 철거(4.3(0.7))’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행동들은 응답자의 80%이상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아파

3) 2010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통계청)

전체 평균	3,598,789원	3인	3,857,249원
1인	1,887,544원	4인	4,264,417원
2인	3,021,105원	5인이상	4,687,953원

트 거주자들의 일반적인 생활행태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분리수거의 경우 거주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아파트 단지차원에서 관리와 단지계획 시 분리수거공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세탁물 건조행동의 경우 디자인 및 기능이 다양화된 드럼세탁기가 보급되고 있고, 가구당 1대 정도의 세탁기를 보유하고 있지만(전력거래소, 2009), 실제 본 연구결과에서는 세탁물의 건조는 빨래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거지의 경우도 식기세척기의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손으로 설거지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속되어온 주생활패턴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주거공간 계획 시 세탁물 건조를 위한 공간계획이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 최근 아파트 분양 시 빌트인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가전제품에 대한 사용 및 필요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여름철 계속 에어컨이나 선풍기 틀어놓음(2.3(0.9))’, ‘설거지 시 항상 온수 사용(2.7(0.9))’, ‘아파트단지의 절약·환경활동 참여(2.8(0.9))’는 3.0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며 ‘집에서 목욕 시 주로 탕목욕을 함’은 2.2(1.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함민정(2008)의 연구에서 욕조가

표 3. 에너지사용행동

행 동 문 항	M(SD)
① 대기전력마크가 부착된 가전제품을 구입	3.6(1.0)
② 가전제품 선택 시 디자인보다 에너지효율을 먼저 고려	3.6(0.9)
③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해서 구입	3.8(0.9)
④ 아파트 구입 시 에너지 효율을 검토하여 선택	3.3(0.9)
⑤ 편리한 가전제품을 많이 구입	3.4(0.9)
⑥ 가스레인지보다 전기포트를 자주 사용	3.7(1.2)
⑦ 사용하지 않는 방의 소등여부 확인	4.2(0.8)
⑧ 세탁물 건조 시 빨래줄(빨래대) 사용	4.4(0.7)
⑨ 세탁물은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	4.1(0.9)
⑩ 음식물은 반드시 식혀서 냉장고에 넣음	3.9(0.9)
⑪ 설거지 시 식기세척기보단 손으로 함	4.4(0.8)
⑫ 설거지 시 항상 온수 사용	2.7(0.9)
⑬ 집에서 목욕 시 주로 탕목욕을 함	2.2(1.0)
⑭ 물을 틀어놓고 머리감거나 이 닦음	2.7(1.1)
⑮ 보조난방기구 자주 사용	2.9(1.0)
⑯ 침대 사용 시에도 전기장판 같이 사용	3.3(1.2)
⑰ 개별제어장치를 사용하여 사용하는 방안 난방	3.5(1.1)
⑱ 겨울철 난방 온도를 높이기보다 옷을 더 입음	3.3(0.9)
⑲ 겨울철 난방 시 권장온도 유지	3.5(0.8)
⑳ 여름철 냉방 시 권장온도 유지	3.7(0.8)
㉑ 여름철 보일러의 스위치를 꺼놓고 필요할 때만 켜	3.6(1.1)
㉒ 여름철 계속 에어컨이나 선풍기 틀어놓음	2.3(0.9)
㉓ 분리수거 철거	4.3(0.7)
㉔ 외풍을 막기 위해 발코니 확장안함	3.6(1.2)
㉕ 가족이 에너지절약을 집에서 실천	3.5(0.8)
㉖ 좋은 에너지정보 주위에 알림	3.1(0.9)
㉗ 아파트단지의 절약·환경활동 참여	2.8(0.9)
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의 사용량 항상 확인	3.6(0.9)
㉙ 단열을 위해 이중유리나 삼중유리 설치	3.2(0.9)
합 계	3.5(0.9)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거나 목욕 외의 다른 용도(단수 시 물 저장, 세탁, 김장 등)로 사용하고, 욕조보다 샤워부스만을 원하는 경우도 많았던 연구결과를 함께 고려해 볼 때 주택의 욕실공간은 거주자들의 행동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에너지사용행동 구성요인

에너지사용행동에 대한 조사결과 6개 문항(⑦⑧⑨⑩⑪⑫)은 응답자의 80%이상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문항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주부의 대부분이 ‘매우 그렇다’로 응답함으로써, 아파트 거주가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에너지행동특성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들 6개 문항을 제외한 후, 다양한 에너지사용행동들이 서로 어떤 공통요인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VARIMAX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통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제거하고, 아이겐 값이 1이상인 5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설명된 총분산은 53.3%였으며, 최종 항목들 간의 신뢰계수(Cronbach's α) 값은 0.687로 나타났다.

1요인에 해당하는 항목은 17, 18, 19, 20, 21 항목으로, 거주자들이 주택 내에서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상적 행동으로 파악되어, ‘소극적절약행태’로 명명하였다.

2요인에 해당하는 항목은 1, 2, 3, 4 항목으로, 가전제품 및 아파트 구매와 관련된 에너지절약행동으로 파악되어, ‘예방적절약행태’로 명명하였다.

3요인에 해당하는 항목은 25, 26, 27, 28, 29 항목이며, 비용을 들여 에너지절약을 시행하거나, 에너지절약정보를 이웃에게 알리고, 실천하는 등의 가장 적극적인 에너지절약행동으로 파악되어 ‘적극적절약행태’로 명명하였다.

4요인에 해당하는 항목은 15, 16 항목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소비 외에 추가적인 소비를 많이 하는 행동으로 파악되어, ‘낭비적행태’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5요인에 해당하는 항목은 5, 6, 12 항목으로, 에너지 절약 행동을 하기보다 자신의 편리를 추구하는 행동으로 파악되어, ‘편리지향적행태’로 명명하였다.

3. 거주자 특성별 에너지사용행동

에너지사용행동으로 파악한 5개의 행태요인(소극적절약행동, 예방적절약행동, 적극적절약행동, 낭비적행동, 편리지향적행동)으로, 앞서 설정한 7개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교육수준, 소득, 주택규모, 취업여부, 거주기간, 생활주기)에 따른 에너지사용행동을 살펴보았다<표5>.

표 4. 행동 구성요인

행 동 문 항	성분				
	1	2	3	4	5
⑱ 겨울철 난방 시 권장온도 유지	.73	.20	.11	-.05	-.16
⑳ 여름철 냉방 시 권장온도 유지	.69	.11	.11	-.05	-.21
⑳ 겨울철 난방 온도를 높이기보다 옷을 더 입음	.64	.14	.13	.05	.02
⑰ 개별제어장치를 사용하여 사용하는 방안 난방	.60	-.14	-.02	-.06	.43
㉑ 여름철 보일러 스위치를 꺼놓고 필요할 때만 켜	.47	.10	.16	.11	-.13
① 대기전력마크가 부착된 가전제품을 구입	.05	.72	.02	.04	-.05
③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해서 구입	.15	.72	.10	.03	.17
④ 아파트 구입 시 에너지효율을 검토하여 선택	.07	.71	.24	-.03	.09
② 가전제품 선택 시 디자인보다 에너지효율을 먼저 고려	.22	.65	.14	-.05	-.01
⑫ 좋은 에너지정보 주위에 알림	.09	.23	.73	.00	.00
⑫ 아파트단지의 절약·환경활동참여	.02	.13	.73	.00	.17
⑫ 단열을 위해 이중유리나 삼중유리 설치	.14	.05	.71	-.04	.02
⑫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의 사용량 항상 확인	.28	.01	.53	-.13	-.26
⑫ 가족이 에너지절약을 집에서 실천	.40	.17	.44	.03	-.24
⑫ 보조난방기구 자주 사용	-.07	.01	-.02	.89	.03
⑫ 침대 사용 시에도 전기장판 같이 사용	.13	-.01	-.08	.87	.08
⑫ 가스레인지보다 전기포트를 자주 사용	.00	-.09	.02	.10	.70
⑫ 설거지 시 항상 온수 사용	-.22	.18	-.01	-.13	.53
⑫ 편리한 가전제품을 많이 구입	-.18	.28	.01	.21	.53
아이겐 값	3.9	2.1	1.7	1.3	1.2
공통변량(%)	12.9	12.0	11.6	8.7	8.0
누적변량(%)	12.9	25.0	36.5	45.2	53.3
	소극적 절약 행태	예방적 절약 행태	적극적 절약 행태	낭비적 행태	편리 지향적 행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소득에 따라서는 ‘소극적절약행태’와 ‘편리지향적행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절약적이지 않으며, 편리지향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택규모 역시 ‘소극적절약행태’와 ‘편리지향적행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주택규모가 클수록 절약적이지 않으며, 편리지향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예방적절약요인’과 ‘편리지향적행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편리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편리지향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적극적절약행태’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7개의 거주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중 소득, 주택규모, 연령, 교육수준, 거주기간에 따라서 에너지절약행태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취업유무와 가족생활주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5. 거주자 특성에 따른 에너지사용행동

		소극적 절약	예방적 절약	적극적 절약	낭비적	편리 지향적
소득	300만원미만	b				a
	300-400미만	a				b
	400-500미만	a **				b ***
	500만원이상	a				b
주택 규모	20평형	b				a
	30평형	a **				a ***
	40평형이상	a				b
연령	30대이하		a			b
	40대		a *			ab *
	50대이상		a			a
교육 수준	고졸이하					
	대졸이상					*
취업 유무	전업주부					
	직업있음					
거주 기간	5년미만			a		
	5-10년미만			b *		
	10년이상			ab		
가족 생활 주기	초등교육기까지					
	중고등교육기					
	성인기					

*p<.05 **<.01 ***p<.001

※사후분석으로 각 집단구분은 Scheffe(a=.05) 검증결과임

IV. 결론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에너지사용 및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거주자 특성별 에너지사용행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에너지사용행동을 살펴보면, ‘사용하지 않는 방의 소등여부 확인’, ‘세탁물 건조시 빨래줄(빨래대) 사용’, ‘세탁물은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 ‘음식물은 반드시 식혀서 냉장고에 넣음’, ‘설거지 시 식기세척기보다 손으로 함’, ‘분리수거 철저의 항목’은 응답자의 80% 이상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 거주자들의 일상적인 생활행동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자의 거주자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에너지사용행태를 살펴보면, 소득이 많고 주택규모가 클수록 주택 내에서 행하는 소극적인 절약을 하지 않으며 편리지향적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편리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편리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거주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중 소득, 연령, 교육수준,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어,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거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구분만으로는 거주자들의 다양한 행태를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에너지사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나 교육을 위해 거주자의 다양한 특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박운아·이기춘 (1995). 환경의식적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199-212.
2. 서정희 (1991). 환경문제에 관한 소비자기능과 관련변수에 대한 연구: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93-101.
3. 안길상·정영숙·이기주·이동섭 (1993).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적인 소비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환경문제와 소비자**, 55-78.
4. 전력거래소 (2009).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전력 소비행태조사**. 서울.
5. 정진희 (1995). **가정생활에서의 에너지 소비절약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6. 장혜연 (1997). **주부의 가치와 친환경적 행동**.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광주.
7. 최남숙 (1984). **가정에너지 소비절약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8. 함민정 (2008). **아파트 단위평면에 대한 소비자 의견과 실제 평면계획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9. 홍기남 (1992). **생활환경문제에 대한 주부의 소비자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광주.